

01 교회소식

학생들의 마음에도 봄이 왔네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크신 사랑으로 만민의 학생들에게 또 한 번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 학생주일학교 동계수련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꿈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소망도 능히 이룰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성경의 숫자들에 담긴 의미

3, 7, 12, 17 등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 담긴 영적 의미와 사인으로 보는 '2018 아동주일학교 비전특강'.

04 간증

“치료의 역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족관절 인대 파열'을 치료받은 정주선 자매와 화상으로 인한 식도협착을 치료받은 중국 어린이의 간증.

만민뉴스

제829호 2018년 3월 1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사랑의 힘, 변화의 길!”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2018 학생 동계수련회’

지난 2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학생주일학교 주최로 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예배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2018 학생 동계수련회’가 진행되었다.

첫째 날 오전 10시 30분, 개회예배 시 교장 김창민 전도사는 ‘사랑의 힘’(막 10:27)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고 목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더욱 결단하여 변화의 열매로 나올 것”을 당부하였다.

오후 2시 30분 교육 시간,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는 ‘영의 세계’(창 1:1)라는 제목으로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항상 목표를 가지고 변개치 않는 순종의 행함으로 달려갈 것”을 전했다.

교육 후 고등부 2학년 김하영 자매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를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기회가 됐어요”라고 말했다.

둘째 날 오전 11시에는 서울디지털운동장(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서 겨울

임에도 포근한 날씨 속에 체육대회를 가졌다. 중등부 2학년 이유나 자매는 “어제 까지만 해도 눈, 비가 내렸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따뜻한 봄 같은 날씨 가운데 하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라고 했다.

이날 밤 11시, 학생들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했다. 1부 예배 시 학생들로 구성된 나사렛성가대가 율동과 함께 ‘빛나는 물결’을 찬양해 영광 돌렸으며, 설교 시간 내내 성전 곳곳에서 학생들의 ‘아멘!’ 소리가 들려 장년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다. 30분 휴식 후 이어진 2부 ‘찬양과 기도’ 시간에는 학년별로 피켓을 들고 단 앞에까지 나와 뜨겁게 찬양했다. 고등부 3학년 이해림 자매는 “찬양을 하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았어요”라고 고백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경배’ 시간을 가졌다. 이 목사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 실력을 갖춰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천국 소망이 넘치는 만민찬양을 부르며 감동과 눈물, 그리고 기쁨이 한데 어우러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고등부 1학년 이재은 자매는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고 강사님이 체험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와 나눠주셔서 너무 좋았고 마음껏 뛰며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라고 했다.

이날 저녁 9시, 학생들은 첫날에 이어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다.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충만한 인도 가운데 주의 종들이 기도를 도울 때 회개와 방언,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방언을 사모했는데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언이 터졌어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졌어요.” 등 간증이 넘쳤다.

고등부 연합회장 백지현 자매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눈물과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며 꼭 열매로 나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성장하는 저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본이 되어 사랑받는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을 공급받은 만민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로 속히 나올 것을 기대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꿈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22)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라고 자랑했어요. 물론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이었고, 오랜 세월 후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요셉이 좀 더 지혜롭고 겸손했다면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잠잠히 마음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덕과 지혜가 부족했지요.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 형들은 마침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버립니다. 형들도 악하지만 요셉이 평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마음을 맞춰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요일 5:18).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과 자신에게 주신 꿈대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거절하자 그녀가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해 하거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꿈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참 믿음을 소유하면 성실함으로 세상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뿐더러 밝고 성실한 모습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범사에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전옥의 인정을 받아 옥중의 제반 사무를 감당했지요.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옵니다. 하루는 이들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요.

2년 뒤,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추천합니다.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며 하나님을 전한 뒤 명쾌한 꿈 해석을 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제시해 주지요(창 41:1~36). 결국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애굽 총리로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넷째,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과연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 전역에는 7년간의 흉작이 있는 뒤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혜로 흉년을 대비했기에 애굽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오게 되었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며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가족은 기근에서 구원받게 되지요. 어린 시절 요셉이 꾸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짧은 시간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를 거치면서 요셉은 더욱 겸비해졌고, 사랑과 덕을 갖춘 큰마음이 되

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통하면서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지요.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성실함으로 연단을 잘 받아 마침내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롬 5:3~4).

2. 믿음과 소망으로 꿈을 이룬 요셉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굳게 믿어 장차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신의 해골도 함께 가져가 달라고 유언하지요(창 50:24~25 ; 히 11:22).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이라는 큰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인류를 구속할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미약했기에 주변의 강한 적들을 피할 피난처가 필요했고, 앞으로 있을 7년 동안 큰 흉년이라는 재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나라 애굽의 식량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인도해 들이심으로 큰 흉년 중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후로 400년 동안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창 45:7~8)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그가 평생토록 얼마나 믿음으로 소망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소망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이룬 인물입니다. 그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과 신앙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첫째, 사람이 고난받는 까닭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고급 채색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이 일하러 나갈 때도 곁에 둘 정도였지요.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하는 것도 불만인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시시콜콜 일러바치니 형들은 요셉이 미웠습니다. 물론 요셉은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의롭다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루는 형들의 곡식 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했다고 요셉은 꿈자랑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꿈에서 해와 달과 열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담긴 영적 의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의미가 담긴 특별한 숫자를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생활을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신다. 이처럼 4는 '땅의 수, 고난의 수'를 의미하며, 6은 '경작한다', '육의 공간에서의 완전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행하실 때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사건이 나온다. 이는 범죄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마음발을 개간하는 인간 경작의 역사 6천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3, 7, 12, 17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합한 수'로서 '온전함을 이룬다'

3

'합하다'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 또는 뜻이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리어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요나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한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중 대풍을 만난 그는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

'완전 수'로서 '완전함'

7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쳐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에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반드시 7번 뿌릴 것을 명하셨는데, 이는 '죄를 완전히 털어낸다'는 뜻이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을 때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비의 응답을 받은 것도 7번 기도한 후였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2) 말씀하심은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이다.

'빛의 수'로서 빛이신 하나님

12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빛의 수 12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예수님께서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요 11:9)라고 말씀하신 대로, 빛이 가장 밝은 때가 낮 12시로 영적인 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나타낸다(요 1:9).

하나님께서 아굽의 12아들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열두 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성곽의 열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이 외에도 생명수 강가의 열두 실과 등 성경에는 빛의 수가 많이 나온다.

'행하는 수'로서 '열매의 수'

17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는 뜻으로, 이 의미가 뚜렷이 드러난 사건이 노아의 홍수이다.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당시 최악이 관영해 결정하신 최후의 선택이지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는 7월 17일부터 물이 감하였고, 아굽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때의 나이는 17세였다. 무엇보다 17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한 바를 보이시는 열매의 수로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Photo

2018 아동주일학교 비전특강

아동주일학교는 봄방학을 맞아 지난 2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비전특강'을 열어 만민의 어린이들에게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중만 중만 기도 중만!



나의 꿈과 비전 '만민의 레위족(교회지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나만의 레시피, '러블리 케이크'



교장 조민경 전도사와 함께한 'HAPPY POWER PRA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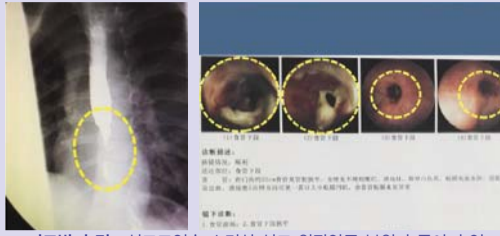
중국 위00(7세, 남) 아들은 2017년 10월 2일에 매우 뜨거운 물을 찬물인 줄 알고 들이키는 사고로, 이후 심한 통증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해 버려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 하부 벽에 미란(씩거나 헐어서 문드러짐)과 궤양(피부 또는 점막에 상처가 생기고 껍)이 생기고 고름이 있는 심각한 상태였다. 중혈과 부종으로 쉽게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다.

12월, 조영술을 시행해 보니 식도 하부의 길이 7.3 cm 정도가 많이 좁아졌고 가장 좁은 부위는 1 mm까지 되었다.

이 사건 후 아이는 4개월이 넘게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미음과 우유로 연명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살이 많이 빠지고 유치원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며 나는 왜 먹

“화상으로 인한 식도협착을 치료받았어요”



▲ 기도받기 전 : 식도조영술 소견상 식도 위괄약근 부위가 좁아져 있고 (길이 7.3 cm 정도) 상부는 확장되어 있음(좌). 상부위장관 내시경 소견상 식도 말단 부위에 궤양이 있고 흉터로 인한 협착 소견을 보임(우).

을 수 없냐고 울 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부모는 아픈 아이를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

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다.’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화평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느우치며 회개했다.

한편,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의 설 만남을 정성 다해 준비하여 2018년 2월 중순, 한국에 와서 직접 기도를 받았다. 그러자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심한 통증이 단번에 사라졌을 뿐 아니라 아이가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점점 호전되는 아이의 모습에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 이후 아이는 매일 조금씩 식사를 하며 살이 올라 예전의 얼굴을 되찾았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수술하지 않고도 좌측관절 인대 파열을 치료받아 이제는 자유롭게 걷고 뛸니다!”

정주선 자매 (16세, 중3선교회)

지난 2월 10일(토) 낮, 계단을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이 안쪽으로 90도 꺾여 순간적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도 못한 채 울고 있었더니 엄마

가 휴대폰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틀어주셨습니다. 기도받은 뒤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부축을 받아 차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다쳤으니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휠체어를 타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갔는데 학생주일학교 교장 김창민 전도사님이 드라마, 유튜브 등 끊지 못한 세상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 저

는 회개를 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에는 답답함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친구들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왼발로 땅을 디디면 복숭아뼈 부분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성가대에 서지 못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더 변화되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었기에 목발을 짚고 성가대에 앉았어요. 한쪽 다리로 지탱하며 찬양을 하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저렸지만 참고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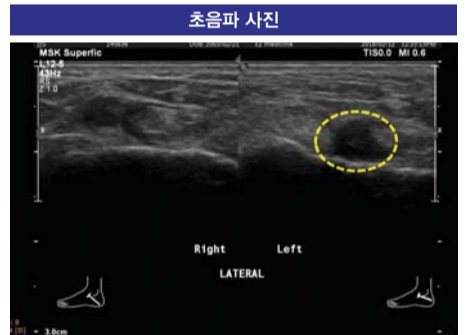
설교를 들은 후 당회장님 환자기도를 받으니 다친 발목을 받쳐주는 힘이 주어져서 조짐들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12일(월), 병원에 가보니 ‘좌측 좌관절 인대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수술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어서 발목을 고정할 수 있도록 반깁스만 하였지요.

화장실도 기거나 업혀서 가야 했고, 머리도 엄마가 감겨주셔야 했습니다. 목발 사용으로 어깨와 팔목이 많이 아팠고, 또 한쪽 다리로 온몸을 지탱해야 했기에 몸

이 너무 피곤해서 그날 저녁은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집에서 다니엘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았던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늘 가르쳐주셨음에도 여전히 학생 신분에 걸맞지 않은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후련하고 가벼워졌고 당회장님과의 설 만남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지요.

2월 14일(수), 드디어 당회장님과 성도들의 설 만남에 참석했습니다. 말씀 후 당회장님의 전체기도를 받았는데, 목발을 한 손으로 들고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 기도받기 전 : 좌측 좌관절 인대가 파열되어 있음.

당회장님과 악수를 하면서 “다리가 많이 괜찮아졌어요!”라고 고백을 드리자 바쁜 중에도 무릎을 굽혀 제 다리에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변화되지 못한 것이 더 죄송해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목발이 필요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계단도 거뜬히 걸어 올라갔지요. 할렐루야!

학생주일학교 동계수련회 때는 뛰면서 찬양해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봉사부 사명도, 체육대회 때 응원도 충만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3030-7750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재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